

# 겨울 산에서 ‘삶의 길’을 보다



지리산 천왕봉을 가기 위해 제석봉 고사목 지대를 지나는 등산객들. 과거 울창했던 구상나무와 주목 등이 벌목된 탓에 세찬 눈보라가 몰아쳐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등산객의 출입을 제한하며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함양·산청 사람들 장 보려 오르내리던 길

1653m 빨아래 겹겹한 산·계곡 운무 장관

## 〈44〉지리산 장터목 길

백무동~장터목

매년 마지막 12월 달력을 넘기면서 꼭 가고 싶은 산이 있다.

그래서 '남도의 길' 마지막 차례인 이번 도보여행지는 가장 힘들면서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택해졌다. 그리고 정작 남도여행을 계획하면서도, 그동안

백무동에서 장터목까지는 5.8km 3시간여, 다시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 1.7km 1시간여가 걸리는 코스이다. 이곳은 현재 지리산 정상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여서 등산객으로 붐비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지리산을 사이에 둔 경남 함양과 산청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오르내리던 ‘삶의 길’이기도 하다.

◇지리산 '하늘 위의 시장(市場)'= 광주에서 88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10여분을 달려 지리산 TG로 빠져나온 후 인월을 거쳐 도착한 백무동. 행정구역으로는 결남 함양군 마천면 강철리이다.

그로는 8월 춤장은 그려는 88년이니.

백무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관광 성수기가 아닌 탓에 상가는 대부분 닫혀있어 적막했다.

주민 박옥남(75)씨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께서 ‘마천사람들은 끽감, 하동사람들은 소금을 가지고 와 짐터복에서 서로 바꾸곤 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며 “아랫동네에서 시집와서 봄철에 참나물과 개발딱주(단풍취) 등 산나물을 뜯으러 짐터복까지 가기도 했

‘장터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부터 장터에 서던 터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高) 1059. 8월 신 ‘하는일의 심장’이라고 생애를

곳(해발 1653m)에 선 '하늘위의 시장'이었던 것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함양군 마천면과 산청군 시천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장을 열고 서로의 생상품을 물  
불교환했다.

개미들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해충들을 찾을 때 운

이 등 농산물을, 남쪽인 시천주민들은 소금과 수산물을  
지고 왔다. 지리산을 돌아가는 것보다 산 능선에서 만  
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의 일이다. 장터목은 백무동과 중산리를 잇는 최단거리  
위치에 있다.

김성진 함양문화원장은 “장터목이 언제 생겼는지 기록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자연 끊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도봉 밑에 위치한 ‘화개재’ 역시 뱠사골 주민들과 경남 하동 화개주민들이 만나 장을 봤던 곳이다. 뱠사골에 있는 ‘간장소’는 소금장수가 소금가마니를 빼뜨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등산로 초입은 날짐승을 위해 남겨놓은 까치밥이 눈길을 끈다. 쭈돌뱅 째죽나무 국착나무 고로신나무

◇제석봉 고사목 옛말= 장터목 대피소는 능선에

노출돼 있어 바람이 세찼다. 대피소 아래에 자리한 취사장에서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제석봉으로 향했다. 영하 몇 도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온음료는 산 중턱에서 결정을 이루다 장터복에서는 아예 마시지 못할 정도로 살얼음으로 변해버렸다.

대한시적이며 1980년대 흥한 지리산 조증을 하며

대학시절이던 1980년대 후반, 시티즌 풍구를 아마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틀간 비가 개길 기다리며 야

영했던 기억이 새롭다. 서녘으로 해가 지고 동시에 동녘에서 보름달이 떠오르는 장관을 본 곳도 이곳이다. 또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산장을 찾은 많은 이들은 칼작은 자 층업은 각고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아, 춥다!’는 절망적인 탄식은 장터목을 지나 제석봉(해발 1808m)에서 터져나왔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찬 눈바람이 몰아쳤다. 제석봉 탐방로를 지나는 동안 두툼한 장갑을 끼었어도 추위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할정도로 온몸이 마비됐다.

앞으로 천왕봉까지는 1시간여를 더 가야하는 거리. 전망이 트인 곳에서 바라본 천왕봉은 여전히 짙은 눈 구름에 싸여 있었다. 결국 망설이다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 제석봉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다짐을 천왕봉에 우뚝 선 ‘하늘아이’의 정상에서 남았던 글자를 봄바람에 흩날렸다.

‘한국인의 기상 이곳에서 말된다’ 새겨진 둘비에서 하고자 했던 생각을 아쉽게도 접어야 했다. 생필품을 교환하기 위해 지리산을 힘들게 오르던 많은 민초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단순한 등산로 안내보다 ‘스토리 텔링’을 가미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싶다.

한해가 저둔다. 그동안 ‘남도의 길’을 읽고 성원해준 많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This image is a collage of travel advertisements from Lotte JTB, showcasing various travel packages and promotional offers. The content includes:

- Top Left:** Lotte JTB logo with the tagline "롯데제이티비" and website "www.LOTTE JTB.com".
- Top Center:** Text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유일한 여행사입니다." and "여행 문의 1577-6511".
- Top Right:** Logos for "롯데제이티비 와 함께 도약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and "2011년 1월 1일, 여행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획득!".
- Left Column (North Korea):** "북경" package starting at 259,000원, including "북경+만리장성, 서커스" and "북경/만리장성+금면왕조" options.
- Middle Column (China):** "상해" package starting at 299,000원, including "상해/항주/소주", "상해/장가계(원가계, 천문산)", and "상해/항주 동리" options.
- Right Column (China):** "광주지점 이전기념! 특별 이벤트" with "예약자 롯데백화점\* 5만원 상품권 증정!!!".
- Bottom Left (Europe):** "유럽" section with "롯데홈쇼핑 인기상품 시리즈" packages like "터키완전일주" (1,590,000원) and "북인도 완전일주" (1,390,000원).
- Bottom Middle (Asia):** "동남아" section with packages like "코타키나발루 직항" (549,000원), "홍콩 마카오" (699,000원), and "스페인 완전일주" (3,590,000원).
- Bottom Right (Asia):** "일본" section with packages like "롯데 백화점 일본 완전일주" (1,250,000원) and "롯데 홈쇼핑 일본" (229,000원).